

북극해운정보 소식지

북극권

- 정책** | 러, 북극항로 경쟁력 강화 등 북극 지역 개발 세미나 개최
미, 북극서 다시 영향력 확보에 나서
러, 북극항로 인프라 개발 국가특별위원회 설립 추진
- 화물** | 러, 2024년 1~4월 러시아 컨테이너선 시장 동향

국제기구 | CAOFA 제3차 당사국 총회 한국에서 개최

비북극권

- 중국** | 위스 뉴 에너지社, 러프로젝트 중단으로 Arctic LNG 2에 영향
중국, 차세대 쇄빙 조사선 '극지' 호 인도
중동의 불안전성으로 보는 북극항로에 대한 새로운 지정학적 고찰
- 인도** | 인도-러시아, 북극 지역에서 협력 확대

인포그래픽

2013-2023년 북극 플라 코드 구역을 향한 특수 선박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러, 북극항로 경쟁력 강화 등 북극 지역 개발 세미나 개최(2024. 6. 6.)

경제전략연구본부 북방극지전략연구실



그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2024 국제 경제 포럼

자료: <https://xn--90ab5f.xn--p1ai/press-tsentr/59108/>

- 6월 5일부터 8일까지 개최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 경제 포럼에서 “북극의 날” 행사가 개최되었음
- 이 행사에서는 북극 지역의 주요 프로젝트를 투자자들에게 소개하고, 북극 도시와 교통 허브의 발전 전망 논의를 위해 북극 지역 지도자들이 참여하는 투자 토론이 진행됨
- “북극항로: 북극의 지평을 넓혀”라는 주제의 토론에서는 최적의 북극 운송 모델의 구상 방향과 철도-해상으로의 화물 전환의 이점, 2035까지 북극항로를 통한 화물 운송량 증대에 필요한 운송 수단과 규모 등에 대한 부분이 논의되었음
- 북극항로(NSR)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랄, 시베리아 지역에 두 개의 추가 철도를 연결해야 한다고 발표와 함께 현재 북극항로 연결 철도는 무르만스크, 아르한겔스크, 블라디보스토크 지역에만 있으며 우랄이나 시베리아 지역에서 북극항로로 연결되는 추가적인 철도 필요성을 강조하며 새로운 경로 획득은 전체 교통 회랑에 걸쳐 화물을 분산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함

- 2024년 북극항로를 통해 최대 300만 톤의 화물을 운송할 계획이며 2030년대 중반까지 2억 5000만 톤의 운송량이 목표임
- 북극항로 전체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해안 인프라가 새로운 대규모 과제를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함
- 한편, 첫 러시아-중국 북극항로 개발 공동위원회 회의가 올해 10월에 개최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양국은 올해 8월까지 해당 프로토콜에 서명할 계획임

🔍 참고자료

- a) <https://xn--90ab5f.xn--p1ai/press-tsentr/59108/> (2024.06.02. 검색)
- b) <https://gov-murman.ru/info/news/523150/> (2024.06.03. 검색)

미국, 북극서 다시 영향력 확보에 나서 (2024. 6. 7.)

경제전략연구본부 북방극지전략연구실



- 북극 지역에 러시아와 중국의 지배력이 강화되자, 미국은 긴장하고 이에 대비 중임
- 지난 10년간 급격한 해빙으로 어업과 채취의 기회가 생기자, 북극은 여러 국가의 이해관계가 생기면서 격변을 겪기 시작했으며 게다가 러시아, 중국, 인도, 튀르키예가 글로벌 야망에 부응하기 위해 북극 전략을 공세적으로 펼치게 되었고, 미국은 한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알래스카 지역을 중심으로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여러 가지 전략적 대응을 수립 중임
- 한편, 러시아는 해저 잠수함을 중심으로 북극 지역에 군사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은 쇄빙선단을 확장하고 스칸디나비아와 그린란드를 가로지르는 극지실크로드 인프라 프로젝트에 자금을 투자 중임. 또한 인도도 최근 첫 북극 전략을 수립했으며, 튀르키예는 북극해에 있는 노르웨이 군도에 있는 스발바르 제도에 대한 상업 및 레크리에이션 접근을 허용하는 조약을 비준한 바 있음
- 이에 대하여 미국도 새로운 북극 확대 전략을 모색하며, 군사적 안보 강화는 물론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 해안경비대의 역할과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스크랜튼호와 같은 쇄빙 쾌속정을 더 많이 확보하려 예산을 편성하였고, 에너지 운반을 쉽게 하도록 알래스카 횡단 파이프라인에도 투자를 강화함
- 미국은 지난 10년 동안 남중국해, 우크라이나, 중동 등에서 제기된 도전에 집중한 탓에 북극 전략 수립에 뒤처져 있으며 이에 따라 북극 조기경보 시스템은 구식이 되었고, 연안 경비대의 북극 쇄빙선 노후화, 과학 장비 노후화, 알래스카의 미군기지 활주로 노후화 등 상당한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며 최근까지도 미국의 정책입안자들은 잃어버린 북극 역량을 회복하는 데는 거의 관심이 없었지만,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비로소 북극 지역의 중요성을 다시금 환기하며 미 의회는 응집력 있는 북극 전략을 수립하기 시작함

📖 참고자료

a) <https://foreignpolicy.com/2024/06/07/arctic-united-states-military-strategy-competition-coast-guard/> (2024.06.01.검색)

러, 북극항로 인프라 개발 국가특별위원회 설립 추진(2024. 6. 19.)

경제전략연구본부 북방극지전략연구실



- 이고르 레비틴(Igor Levitin) 러시아 대통령 고문 및 국제 교통 협력 특별 대표는 노보시비르스크에서 개최된 제11회 시베리아 교통 포럼에서 러시아 국가위원회 산하 북극항로 인프라 개발 위원회를 안드레이 치비스(Andrey Chibis) 무르만스크 주지사가 이끌 예정이라고 밝혀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 경제 포럼 전체 회의에서 북극항로 인프라 개발 작업이 계속될 것이며, 이를 위해 러시아 국가위원회에 관련 위원회를 설립할 것
- 레비틴 고문은 "우리의 과제는 북극항로 인프라를 정비하는 것이고 이는 해상 및 하천 항구, 강 하구에서 북극항로로 나가는 쇄빙선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북극항로 및 북극 개발을 위한 국가위원회의 특별위원회가 설립될 것이며, 이를 무르만스크 주지사가 이끌 것"이라고 언급
- 한편, 제11회 국제 시베리아 교통 포럼은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노보시비르스크에서 개최되었으며 참가자들은 포럼에서 교통 물류 인프라, 무인 시스템 및 디지털 혁신, 도로 건설 전망, 교통 안전, 내륙 수로 운송, 항공 산업 발전 등에 대해 논의

📖 참고자료

a) <https://spb.vedomosti.ru/economics/news/2024/06/19/1044782-chibis-vozglavit-komissiyu-gossoveta-po-razvitiyu-sevmorputi-i-arktiki/> (2024.06.12.검색)

2024년 1~4월 러시아 컨테이너선 시장 동향 (2024. 5. 30.)

경제전략연구본부 북방극지전략연구실



그림. '24 1~4월, 러시아 컨테이너 시장 11% 증가

자료: <https://portnews.ru/news/363175/>

- FESCO 운송그룹에 따르면 2024년 1~4월 러시아 컨테이너 시장은 전년 동기 대비 11.4% 증가한 217만 6천 TEU를 기록함
- 수입량은 7% 증가한 93만 5천 TEU, 수출량은 12% 증가한 60만 4천 TEU에 달함. 환적 화물량은 20% 증가한 19만 8천 TEU를 기록했으며, 국내 컨테이너 운송량은 43만 9천 TEU로 16% 증가함
- 올 4월 러시아 컨테이너 시장은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한 57만 4천 TEU를 기록함. 이러한 성장의 동력은 상트페테르부르크 항을 통한 컨테이너 운송이 주요 원인임
- FESCO 운송그룹은 항만, 철도 및 통합 물류 사업을 운영하는 러시아 최대 운송 및 물류 회사 중 하나로 이 그룹은 블라디보스토크 상업항, 복합운송 운영업체인 FESCO 통합 운송, 냉동 컨테이너 업체 Dalrefrans, Transgarant 및 FESCO Trans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노보시비르스크, 하바롭스크, 톰스크 및 블라디보스토크에 터미널 단지를 운영 중으로 컨테이너 선대 규모는 17만 TEU 이상, 전용 화차는 1만 1천 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음

④ 참고자료

a) <https://portnews.ru/news/363175/> (2024.05.22. 검색)

CAOFA 제3차 당사국총회 한국에서 개최(2024. 6. 14.)

경제전략연구본부 북방극지전략연구실



- 2024년 6월10일부터 12일까지 3일 동안 인천에 있는 극지연구소에서 「중앙 북극해 공해상 비규제어업방지협정(CAOFA*)」 제3차 당사국 총회가 개최
- 해당 협정은 북극권 5개국(미국, 러시아, 캐나다, 덴마크, 노르웨이)과 비북극권 5개국(한국, 일본, 중국, 아이슬란드, 유럽연합)이 당사국으로 참여하며, 상업적 조업을 일시적으로 유예하고, 북극해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공동연구 및 시험조업을 수행을 목적
- 이번 총회의 성과는 먼저, 공동 과학연구 및 모니터링 프로그램(JPSRM) 이행계획이 채택되었으며 이는 북극 공해의 해양 생물자원과 생태계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
- 해당 계획은 향후 상업적 어업 활동이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
- 또한, 시험조업에 관한 논의도 진행되었으며 당사국들은 시험조업의 조건, 보고 절차, 모니터링 방식 등에 대해 광범위하게 논의, 특히 '시험조업 보존·관리 조치' 채택을 목표로 작업반 활동 등을 통해, 차기 총회까지 더 상세한 조치를 마련하기로 합의
- 회의 구조에도 변화가 있었으며 과학조정그룹(SCG) 산하의 일부 작업반이 폐지되고, 데이터 관리 작업반의 의장이 확정, 또한 CAOFA 웹사이트 구축을 위한 새로운 작업반이 설립
- 회의는 또한 향후 과제를 제시, 2025년 노르웨이에서 열릴 차기 총회에서는 '시험조업 보존·관리 조치', 비당사국의 협정 가입 요청 처리 절차, 기후변화가 중앙 북극해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다른 국제기구들과의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
- 이번 총회의 결과는 북극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 또한 과학적 연구와 모니터링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동시에 미래의 상업적 어업 활동에 대비한 신중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음

🔍 참고자료

a)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5102&page=5 (2024.06.11. 검색)

위스 뉴 에너지社, 러 프로젝트 중단으로 Arctic LNG 2에 영향 (2024. 6. 17.)

경제전략연구본부 북방극지전략연구실



- 중국 엔지니어링 기업 위스 뉴 에너지(Wison New Energies)가 현재 진행 중인 모든 러시아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향후 신규 러시아 사업 수주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
- 회사 측은 러시아 파트너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지만 전략적 미래를 위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
- 이 발표는 지난 5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에서 '신시대' 동반자 관계를 선언하고 여러 안보 현안에서 미국에 반대 입장을 밝힌 정상회담 이후에 나온 것
- 노바텍(Novatek)은 지난해 위스 뉴 에너지와 하얼빈 광한가스터빈(Harbin Guanghan Gas Turbine)사의 장비를 사용해 LNG 플랜트용 가스터빈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기단(Gydan) 반도에 연간 1,980만 톤의 LNG와 160만 톤의 가스 콘덴세이트를 생산할 수 있는 Arctic LNG 2 플랜트를 건설 중이었지만 이 프로젝트는 이미 러·우 전쟁으로 인한 서방의 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
- 작년 12월 첫 번째 트레인(train)에서 생산이 시작되었고, 올해 1분기부터 상업적 공급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외국 주주들의 참여 중단으로 노바텍은 불가항력을 선언했고, 제재와 가스 운반선 부족으로 생산을 중단
- 따라서 위스 뉴 에너지의 러시아 사업 철수는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Arctic LNG 2 프로젝트에 더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전망

📄 참고자료

a) <https://www.reuters.com/business/energy/chinas-wison-new-energies-quit-russian-projects-blow-arctic-lng-2-2024-06-21/> (2024.06.08.검색)

중국, 차세대 쇄빙 조사선 '극지' 호 인도(2024. 6. 24.)

경제전략연구본부 북방극지전략연구실



그림. 중국의 차세대 쇄빙 조사선 '극지호'



자료: <http://www.stdaily.com/index/kejixinwen/202406/dfc9b3dd7dc74997bbab0f991930f260.shtml>

- 2024년 6월 24일, 중국의 차세대 쇄빙 과학조사선 '극지(極地)' 호가 광저우(广州) 난사(南沙)에서 공식 명명식 및 인도식을 가져, 해당 선박은 2024년 하반기부터 과학조사 임무에 투입될 예정
- 중국 자연자원부 베이하이(北海)국 소속인 '극지'호는 중국선박그룹(中国船舶集团) 산하 광촨국제유한회사(广船国际有限公司)가 자체 설계 및 건조하였으며 선박 길이 89.95m, 선폭 17.8m, 시속 15해리의 '극지'호는 무제한 항해가 가능하며, 4,600톤 규모에 1만 4,000해리 항속 거리를 보유
- 해당 선박이 겨울에는 서해와 발해에서 쇄빙, 환경 모니터링, 해수 측정, 구조 활동을, 여름에는 극지 및 원양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혀
- '극지'호는 앞으로 극지 해양, 해빙, 대기 등에 대한 종합 조사 및 관측 연구를 주로 수행하게 되며 종합적인 해양환경 관측과 샘플 채취 능력을 갖춘 이 선박은 중국의 해양재해 대응능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참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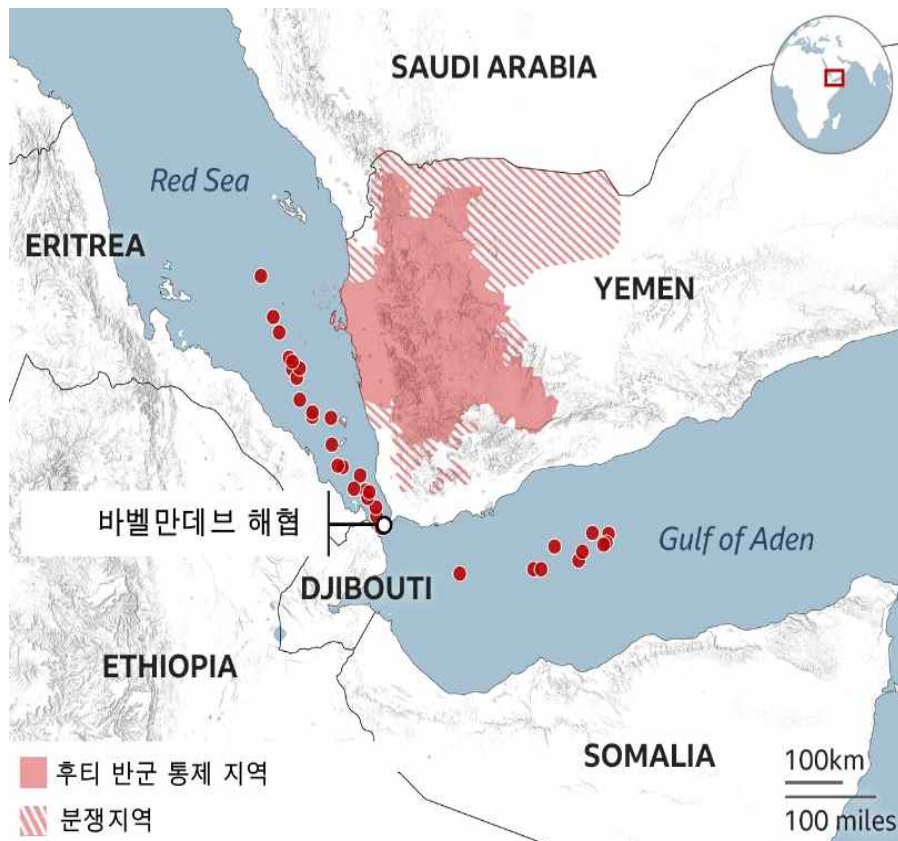
a) <http://www.stdaily.com/index/kejixinwen/202406/dfc9b3dd7dc74997bbab0f991930f260.shtml> (2024.06.11.검색)

중동의 불안전성으로 보는 북극항로에 대한 새로운 지정학적 고찰 (2024. 6. 5.)

경제전략연구본부 북방극지전략연구실



그림. 예멘 해안에서의 공격으로 인해 손상된 선박



자료: Ambrey Intelligence, Aclcd, <https://www.bbc.com/news/world-middle-east-67614911>

-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후티 반군의 상업용 선박 공격으로 홍해 해상 교통량이 평년 대비 60% 감소, 위험을 감수하고 항해에 나선 서방 선박들도 바브엘만데브 해협 통과 시 보험료 급등에 직면
- 세계 5위 상선단과 최대 전쟁위험보험 풀을 보유한 노르웨이도 후티 공격 이후 홍해 통과 선박 보험료가 100배 상승, 높은 비용과 후티 공격에 대한 우려로 일부 화주들이 북극항로를 대안으로 고려하기 시작
- 북극항로가 수에즈 운하 대비 약 5,000마일 단축 효과가 있으나, 노르웨이 전문가의 가까운 미래에 현실적 대안이 되기 어렵다 전망

- 러시아가 북극항로 70%를 통제하고 있어 러-우 전쟁으로 불안정한 서방-러 관계가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얇은 수심, 열악한 기상 조건, 수색구조 역량 부재, 고가의 내빙선 건조 필요성 등 운항 여건도 매우 불리
- 지정학적 리스크, 열악한 운항 여건, 높은 초기 인프라 구축 비용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에 따른 해빙, 러시아 및 중국의 적극적인 북극 진출, 기술 발전 등으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북극이 새로운 국제 정치·경제의 각축장으로 부상할 가능성에 대비해 관련국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이 필요할 것임

🔍 참고자료

- <https://foreignpolicy.com/2024/05/30/arctic-geopolitics-russia-china-maritime-trade-northern-sea-route/> (2024.6.4.검색)
- <https://www.bbc.com/news/world-middle-east-67614911> (2024.6.4.검색)

인도-러시아, 북극 지역에서 협력 확대(2024. 6. 2.)

경제전략연구본부 북방극지전략연구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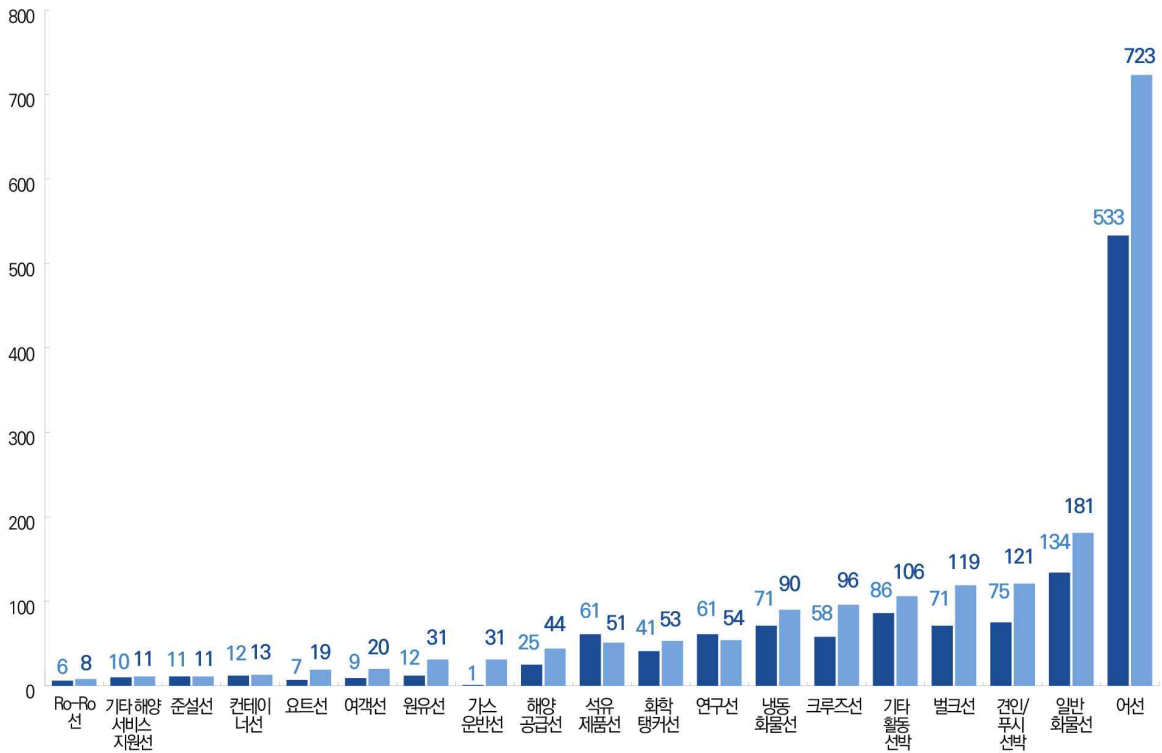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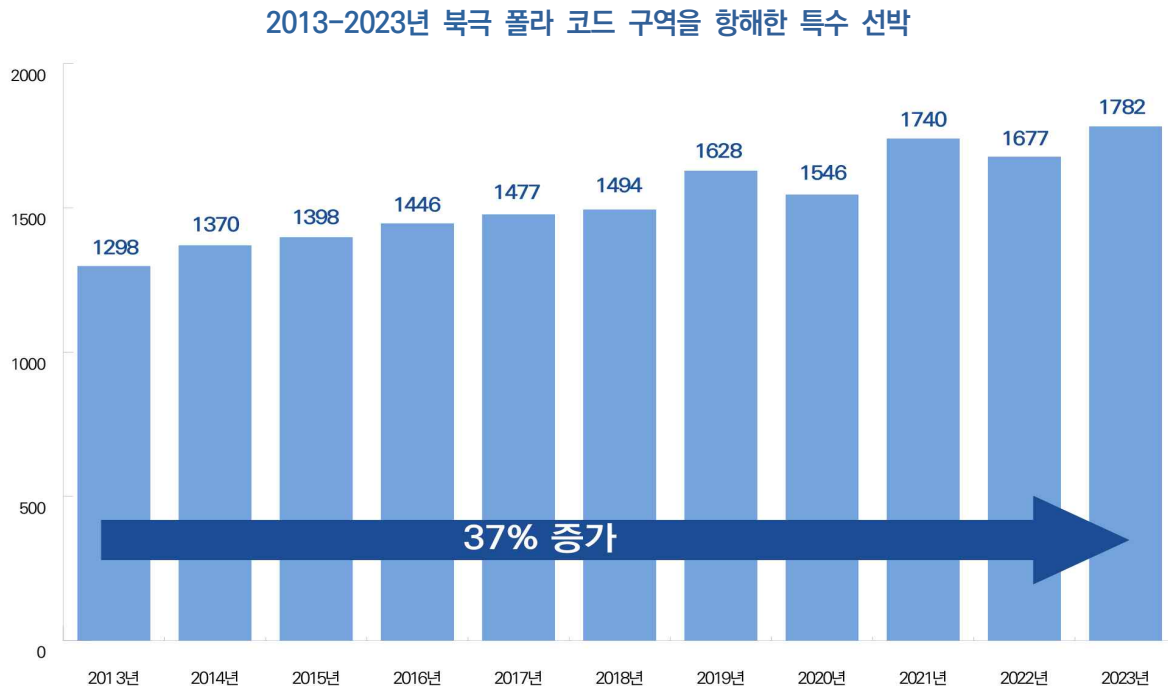
- 러시아의 북극 지역에는 석유, 천연가스, 희토류 광물이 아직 개발되지 않은 대규모 매장량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 러시아의 북극 지역은 북부 해안을 따라 약 5,500km에 걸쳐 펼쳐져 있으며, 그 면적은 약 200만 평방미터에 이르는 지역에 석유, 천연가스, 광물과 같은 천연자원 매장
-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해 북극해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북극권 외에 국가들에게도 극지 진출 기회 생겨
- 인도는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극지에 진출하기로 하였으며 인도의 한 싱크탱크(think tank) 전문가는 러시아 뉴스 매체인 스푸트니크(Sputnik)에 북극이 인도에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의미할 수 있다고 말하였고 또한 극지방의 풍부한 중요한 광물에 접근할 수 있다고도 언급
- 뉴델리 소재 싱크탱크 NatStrat의 수석 연구원인 라지 쿠마르 샤르마(Raj Kumar Sharma) 박사는 러시아가 북극 지역 프로젝트에 협력하기 위해 점점 더 자국에 우호적인 국가를 찾고 있다고 발언
- 샤르마 박사는 탄화수소, 인프라 개발, 연결성, 목재, 광업과 같은 분야의 프로젝트에 대한 협력이 북극에서 인도-러시아 협력의 미래를 정의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면서 “인도와 러시아는 단순한 국방 무역을 넘어 관계를 다각화해야 한다. 또 북극은 인도-러시아 관계를 확대하고 강화할 기회를 제공한다.” 언급
- 이러한 변화는 부분적으로 우크라이나 분쟁 이후 8개국 북극 위원회의 활동이 중단되었기 때문이며 북극이사회의 8개 회원국은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러시아, 스웨덴, 미국으로 즉 전쟁으로 인해 고립된 러시아와 북극 진출을 통해 경제적·정치적·과학적 이득을 취하려는 인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으로 해석 가능
- 인도는 2022년 3월 '북극정책'을 수립한 이후 극지방에서의 활동을 늘려왔으며 인도의 북극 정책은 과학연구 및 협력 강화, 기후와 환경 보호, 경제 및 인간 개발 촉진, 교통 및 연결성 개선, 거버넌스 및 국제 협력 보장, 국가 역량 강화 등 6가지 주요 영역에 중점

- 지난 2월 뉴델리에서 열린 외교정책 회의에서 인도의 대외협력부 자이산카르(Jaishankar) 장관은 북극 물류 루트(Polar Route)가 인도-태평양 지역을 통과하여 인도와 유럽 사이에 새로운 물류 경로를 창출할 수 있다고 언급

📖 참고자료

a) <https://www.dailyexcelsior.com/india-russia-collaboration-in-arctic-region/> (2024.05.29.검색)

2013-2023년 북극 플라 코드 구역을 향해한 특수 선박



〈표. 2013-2023년 북극 플라 코드 구역을 항해한 유형별 특수 선박 수〉

(단위: 대)

특수 선박 유형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Ro-Ro선	6	8	12	6	7	6	6	6	9	9	8
준설선	11	14	12	12	4	3	7	19	16	6	9
기타 해양 서비스 지원선	10	16	12	8	13	10	10	12	13	8	11
컨테이너선	12	6	8	8	12	9	6	11	7	8	13
요트선	7	9	9	12	8	9	14	5	10	21	19
여객선	10	14	12	17	14	17	17	9	13	15	20
원유선	12	10	9	14	17	19	26	24	18	16	31
가스운반선	1	0	1	0	4	13	24	26	26	26	31
해양지원선	25	52	41	25	36	45	45	51	52	31	44
화학탱커선	42	45	54	50	50	60	60	53	47	55	53
석유제품선	62	70	58	47	58	53	55	55	58	54	53
연구선	62	70	59	58	60	53	48	47	50	51	54
냉동 화물선	71	68	77	76	92	81	81	89	83	81	90
크루즈선	58	58	55	63	63	65	73	7	12	78	96
기타 활동 선박	55	65	60	72	67	67	67	69	85	81	104
벌크선	71	66	78	78	75	86	106	98	96	114	119
견인/푸시 선박	76	71	87	79	79	80	93	97	119	104	121
일반 화물선	141	160	164	199	182	155	174	187	219	183	181
어선	566	568	590	622	636	663	716	681	807	736	725
합계	1,298	1,370	1,398	1,446	1,477	1,494	1,628	1,546	1,740	1,677	1,782

④ 참고자료

a) PAME, The increasing in arctic shipping 2013-2023